

교회에 복음의 생명을 선포하는 교리 설교

Doctrinal Preaching to Proclaim Life of Gospel in the Church

이승진 (Seung Jin Lee)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현대 문화의 실용주의와 상대주의, 지성적인 이해보다는 감성과 경험 위의 신앙생활. 그리고 경험과 흥미 본위의 문화생활에 대비되는 교육과 학습에 대한 저조한 관심 때문에 현대 교회의 강단에서 교리 설교가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설교해야 하고, 성경을 올바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2천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계승 발전된 교리적인 체계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또한 교인들의 체계 있는 신앙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류와 같은 근원적인 주제들에 대한 체계 있는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교리의 기능은 목회의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공해 주며, 교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 자신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해석의 준거체계를 제공하며,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교리 설교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올바른 목회 철학과 목회 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그 목회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특정 교리의 교육과 설교의 주제와 횟수를

*논문 접수일: 2010. 8. 12. 수정 접수일: 2010. 9. 15. 게재 확정일: 2010. 10. 20.

결정하고, 이어서 해당 교리를 주제 설교, 혹은 연속 강해 설교로 전할 것 인지를 결정한다. 해당 교리에 대한 설교 본문이 결정되면 주제작업을 통해서 주제의 중심사상과 신학적인 중심사상, 그리고 설교의 중심사상을 정리하고, 이어서 특정 교리에 대한 설교의 중심사상을 회중의 상황과 연관성 있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교리를 특정 회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설교의 전략을 확보한다.

주제어: 개혁주의, 교리 설교, 생명 신학, 상황화, 중심사상.

I. 여는 말

최근에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 현장과 유리(遊離)되어 상아탑 속에, 또는 사변적인 논쟁 속에 갇혀버린 신학과 신학자들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석학원의 설립자인 장종현 박사는 90년대 이후 한국 신학의 외적인 규모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침체하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기독교 신학이 학문적인 유희나 사변적인 논리 싸움을 넘어서서 기독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 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제목이 매우 극단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물론 신학도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상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

은 단순히 이론적인 학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사역이 그 중심을 이루기 때문입니다.¹⁾

말하자면 기독교 신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학문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생명의 사역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²⁾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은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이론과 실천의 분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 현장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현하는데 봉사할 수 있을까? 20세기 후반에 실천신학이 발전하는 가운데 일단의 신학자들 역시 기독교 신학이 이론과 실천으로 분리되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실천신학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돈 브라우닝(Don, Browning)³⁾이나 에드워드 팔리(Edward Farley),⁴⁾ 기스베르트 딩거만(Gijsbert Dingmans)⁵⁾과 같은 일단의 실천신학자들은 기독교 신학(theology)이 서구의 근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론적인 학문(theoretical science)과 교회의 실천(ecclesial practice)으로 분리된 역사적인 과정을 추적하면서 실천신학의 범주 안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 1) 장종현,『생명을 살리는 교육』(서울: 백석신학연구소, 2008), 77; 장종현,『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백석 장종현 박사 육영 30년》(2007), 134-135.
 - 2) 장종현,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학자"『개혁주의생명신학회 제 1차 정기학술대회 및 창립총회』(서울: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창립추진위원회, 2009), 9-15.
 - 3) Don S. Browning, ed., *Practical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1-16.
 - 4) Edward Farley, "Theology and Practice : Outside the Clerical Paradigm", Don S. Browning, ed., *Practical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21-41.
 - 5) Gijsbert D. J. Dingmans, "Practical Theology in the Academy: A Contemporary Overview," *The Journal of Religion*, vol. 76, no. 1 (January 1996), 82-96.

이들은 근대 스콜라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신학이 신학적인 탐구의 출발점에서부터 먼저 이론(theory)과 실천(practice)을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구분해두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교회 현장에서 이론과 실천을 “비평적 성찰에 근거한 정행(正行)”의 관점에서 통합시키는 프라시스(praxis)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학이 교회 현장으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현장에서 그 본래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적 규범과 현장의 실천 사이를 끊임없는 해석학적인 나선형의 탐구 과정으로 수렴될 수 있는 신학 방법론으로서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여 “비평적 성찰에 근거한 정행”(praxis based on the critical reflection)을 제시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설교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설교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을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교리설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주장은 기독교 신학에서 학문활동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기독교 신학이 단순히 사변적인 논쟁이나 인식론적인 논증 활동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현장에서 그 본래의 생명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 그렇다면 이렇게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교회 현장의 실천을 비평적 성찰에 근거한 프라시스의 관점에서 통합시키는 설교학의 한 가지 대안을 “교리 설교”(Doctrinal Preaching)로부터 모색할 수 있다. 교리 설교는 초대교회

6) 장종현, 「우리 것」(천안: 백석정신아카데미 개혁주의생명신학본부, 2009), 65. “개혁주의생명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죽어 있는 개혁 신학을 살려야 한다는 말이다. 죽어 있는 개혁신학, 말뿐인 개혁신학, 역사의 유물처럼 지식의 유화로 남아 있는 개혁신학을 진정으로 살리는 신학이 생명신학이다. 생명신학은 성경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성경의 빛 아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

이후 기독교 2천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지탱해온 근본 교리를 중에서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확인되고 재천명된 개혁주의 사상을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신자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그 생명의 세계로 올바로 안내하도록 하는 설교이다.⁷⁾ 그래서 본고에서는 목회 현장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의 핵심으로서의 “기독교 교리”(Christian Doctrine)의 중요성이 점차 무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설교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쳐서 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복음에 담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올바로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최근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상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어서 목회에서 교리가 어떤 순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목회 사역에서 교리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어서 설교 현장에서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할 목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교리를 설교 속에 담아서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교리에 대한 무관심

목회 현장에서 교리(*教理, doctrine*)의 중요성이 점점 무시되고 있다.

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장종현,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학자”『개혁주의생명신학회 제 1차 정기학술대회 및 창립총회』(서울: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창립추진위원회, 2009), 14; 박찬호,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신학 교육: 학문만으로서의 신학의 문제”『생명과 말씀』제1권 (2010): 43.

7) Ronald J. Allen, *Preaching Is Believing: The Sermon As Theological Reflec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2), 143-146.

단적인 예로 교회에 출석하는 상당수의 신자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교단적 배경이나 독특성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신자들이 출석할 교회를 결정할 때 교회 선별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교회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교리적 가르침을 강조하는가에 의해서 교회를 결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그 교회는 신자 자신들에게 어떤 유형의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을 제공하는가, 예배시간은 얼마나 활기차고 재미있게 진행되는가, 자가용이나 대중 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은 얼마나 편리한가, 또는 주차장이나 식당, 유아실과 같은 교회 제반 복지 시설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 등등에 의해서 교회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기대나 관심사가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종교 생활의 실용성과 편리성으로 이동하면서, 자연히 목회자들의 목회적 강조점 역시 여기에 편승하고 있다. 예배나 설교에서도 함께 모여 신앙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회의 지향점을 담은 교리적인 가르침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그 대신 신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심리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세상에서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심리적인 방편이나 기제들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따로 부름 받아 모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신학적 자각과 사명의식이 희박해지고, 종교 생활의 실용성과 편리성, 그리고 영적인 안락을 제공하는 곳을 따라서, 마치 계절마다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철새처럼 그렇게 이동하는 교인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 입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 최근에 '신천지'를 비롯하여⁸⁾ 여러 이단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

로 더욱 왕성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이단적 가르침에 쉽게 현혹되고 넘어가는 이유도 교리 설교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회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면서 교회 건물이나 심리적인 위안거리와 같은 비본질적인 것들로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 매력적이고 더욱 설득력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세속 문화나 이단 단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교회는 영적인 구심력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차원에서 더욱 매력적인 것들을 찾아서 떠나는 교인들을 더 이상 붙잡을 수도 없을 것이다. 바람직한 교회 성장을 바라는 목회자라면 교리적인 설교가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부흥이 교리적 설교의 간신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설교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⁸⁾

A. 실용주의

교회 안에서 교리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로는 목회의 실용성이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기독교 교리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 실용성은 교인들의 입장과 목회자의 입장으로 구분된다. 먼저 교인들 편에서의 실용주의란, 교리는 신자들의 삶과 무관하거나 실용적인 유익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교리를 어디에 써 먹을 데가 있느냐?’는 것이다.

8) ‘신천지’(또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의 이단성과 그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5월 MBC ‘PD수첩’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되었으며, <뉴스엔조이>와 <교회와신앙> 등 일부 교계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소개되고 있다. 또한 ‘바로 알자, 신천지’ 카페(<http://cafe.godpeople.com/onlygodsglory/>)에서는 피해자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신천지에 관한 최근의 이단적인 교리들과 신천지의 내막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9) 밀라드 에릭슨 & 제임스 해플린, *Old Wine in New Wineskins: Doctrinal Preaching in a Changing World*,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 설교』, 이승진 역 (서울: CLC, 2005), 108.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교회(나 목회자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승해 온,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에 관한 신앙 고백이나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세적 삶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관심으로 치우칠 경우에 교리적인 관심은 변방으로 물러날 수 밖에 없다. 현대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바로 실용주의라는 점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잘 알려진 현실이다.

영화 <은밀한 유혹(Indecent Proposal)>에서 로버트 레드포드는 데미 무어와 그녀의 남편에게 자신이 아내 데미와 잘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면 백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 부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오프라 윈프리 쇼의 시청자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의 52%가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도 똑같이 반응했을 거라고 말했다. 유사한 조사에서 미국인 네 명당 한 명 꼴로 1천만 달러를 준다면 가족 전부를 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돈을 준다면 100명 중에서 23명이 일주일 동안 매춘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고, 16명은 배우자를 떠날 수도 있으며, 7명은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응답했다.¹⁰⁾

현대 교회가 이 정도의 실용주의에 물들지는 않았지만, 세속적인 실용주의의 가치관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인들 중에서는 자신의 세속적인 유익과 영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가 제시하는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냉

10) 제임스 패터슨과 피터 김, 『미국이 진리를 말했던 날(The Day America Told the Truth)』 (NewYork: PrentisHall, 1991), 66; 재인용 데이비드 헨더슨, 『세상을 따라잡는 복음』 임종원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258.

담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교인들의 실용적 가치관을 무조건 평하할 수만은 없다. 즉 교회가 2천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계승해 오고 있는 교리와 신앙고백들은 오늘을 사는 신자들의 삶과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제시되며 가르쳐져야 한다.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교리가 단순히 2천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누적된 추상적이고 이해해야 할 내용으로만 신자들에게 제공될 뿐, 그 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영적인 삶과 구체적으로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리와 신자의 영적인 삶(또는 영성형성 과정)과 역동적으로 접목시키지 못한다면, 그렇게 자신의 삶과 무관한 단순한 추상적인 정보로서의 교리는 신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¹¹⁾

예를 들어 성찬식을 시행하는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성만찬의 신학적인 의미와 가치를 설명할 때, 교회사 속에서 누적된 신학적인 견해들(화체설이냐 기념설이냐 영적임재설이냐?)을 강의하고 소개하는 데 머무를 뿐 오늘 신자와 신앙 공동체의 삶 속에서 특정 교리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문제점들을 다루는데 실패한다면, 그런 추상적인 정보 차원의 교리는 신자들에게 환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폭력과 갈등과 부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얼룩진 2008년도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인되심의 증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조용하고도 은밀한 방식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직접 통치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증거물로서의 성만찬의 가치를 제시해야

11) Robert Kysar, "New Doctrinal Preaching for a New Century," *Journal for Preachers* 20:3(1997), 19. 교리가 신자들의 삶과 무관한 추상적 정보 전달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리 설교는 필연적으로 상황화(contextualization)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교리 설교의 상황화에 대해서는 본고의 후반부에서 다를 예정이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밀라드 에릭슨 & 제임스 헤플린의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 설교』229-255를 참고하라.

한다. 성만찬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비록 보잘 것 없어 보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신자들에게 영을 통하여 찾아오시며 임재하시며,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물을 매개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신자들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지,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업으로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만찬이 아직도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지탱해 주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지를, 예배와 설교, 교육, 선교와 봉사와 같은 다양한 목회 활동들을 통해서 실행하고 구현할 때, 비로소 '영적 임재설'에서 의도했던 성만찬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목표로서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 예식 중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의 기쁨과 감격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reality)로 신자 각자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교리가 강조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교인들의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을 지목할 수 있다면, 목회자들의 실용주의적인 목회관 역시 교회가 교리를 기피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할 수 있다. 즉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이나 강단에서 교리를 자주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교리가 단기간의 숫적인 성장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목회자들의 판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앞에서 교리에 대한 신자들의 실용주의적 가치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교리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일종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물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전부 교인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리에 대한 교인들의 무관심과 목회자의 무관심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강단에서나 교육 현장에서 몇 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했지만 그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면 목회자 역시 교리 교육이나 교리 설교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도 설교자들의 설교 주제로서 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지난 해 목회와 신학 4월호에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578명을 대상으로 설교 사역에 관하여 심층적인 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설교 주제를 묻는 질문에서, 절반이 넘는 목회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51%)고 하면서 성경을 설교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21세기에 맞게 현대 사회의 주제들을 다뤄야 한다'(31.5%)거나 '윤리와 생활을 강조하는 설교' (9.2%)를 선택한 반면에 '교리적인 주제와 교육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겨우 8.3%에 불과하였다.¹²⁾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목회자가 숫적인 성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들이나 전략에만 골몰할 경우에 교리의 중요성은 올바로 자리매김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인 제임스 헤플린(James Heflin) 역시 교회 성장이란 목회적 중압감에 시달리는 목회자들이 실용주의적인 이유나 성공에 대한 압력, 그리고 시간과 훈련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리를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³⁾

B. 상대주의

교회가 교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현대 사회 속에

12) "한국교회 설교사역에 관한 최초 심층 설문 조사" 『목회와 신학』2007년 4월호, 67.

13) 밀라드 에릭슨 & 제임스 헤플린, 131-138.

팽배한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이다.¹⁴⁾ 상대주의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 차이와 관점의 차이를 인정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단 하나만의 진리란 존재할 수 없고 모두에게 강요할 수도 없으며 각자의 입장과 형편에 맞는 진리를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뿐이고 자신 밖의 외부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진리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주의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올 때 신자들은 한 가지 입장만이 진리라고 강조하거나 또는 이 입장이 다른 입장에 비해서 더욱 우월하다고 가르치는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부감을 가지거나, 혹은 거부감은 없더라도 다른 견해도 용납이 가능하다는 심리적 전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에서 설교자가 John Calvin의 예정론을 가르치거나 침례가 아닌 세례의 우월성을 가르칠 때 이러한 교리와 반대되는 입장(알미니안이나 침례교)을 따르는 교파나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또 교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배우는 교리의 우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확신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만일 어떤 하나님의 교리적인 가르침이 가장 온전하고 순수한 진리라면 여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와 다른 진리나 가르침은 그 자체가 몽땅 비진리였다. 결코 용납되어서도 안 되었고 또 전혀 용납되지도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장 온전하고 순수한 진리와 여기에 미치지 못한 차등의 진리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견해까지 함께 용납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⁵⁾

14) Ronald J. Allen, *Preaching is Believing: The Sermon as Theological Reflec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29-33.

III. 목회 현장에서 교리의 순기능

앞에서 살펴본 실용주의나 상대주의의 가치관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교리가 푸대접을 받고 있지만 목회 현장에서 교리의 중요성과 그 순기능 역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목회 현장에서 교리의 순기능은 목회자 편에서의 유익과 신자 편에서의 유익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① 먼저 목회자 편에서의 교리의 중요한 순기능은 교리가 목회의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공해준다.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목회 사역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을 중재하는 것이다.¹⁵⁾ 설교나 예배, 교육, 봉사와 같은 다양한 목회 사역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만남을 중재하는 것이며, 그 목회 사역들은 이를 방편 삼아서 이 땅에 다가오며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the coming kingdom of God*)의 실현 양식이다. 목회 사역이 하나님의 간접적인 임재 양식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실현되는 방편이라면, 이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 성에게 베푸시는 대속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것이며, 그 은혜의 일차적인 시여자인 교회의 본질과 속성과 사명은 무엇이고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가

15) 조지 바나 연구소(the Barna Organization)가 북미권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하는 신자들도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서로 대립되는 방식으로 진리를 규정지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대립되더라도 그 진리 역시 옳다'는 입장에 상당수의 신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eorge Barna, *What American Believe: An Annual Survey of Values and Religious Views in the United State* (Ventura, Calif: Regal, 1991), 84-5; The Barna Report 1992-93: *American Renews Its Search for God* (Ventura, Calif: Regal, 1992), 76-8; 294-5.

16) Jacob Firet, *Dynamics in Pastoring* (Grand Rapids: Eerdmans, 1986), 83-4.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 등등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가 통전적인 관점에서 올바로 갖추어질 때, 비로소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어떤 목표와 방향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를 잘 직시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목회 사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리적 이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목회 사역의 목표와 방향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② 교인들 편에서 볼 때 교리의 중요한 가치와 기능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감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파편화(segmentation)를 지목할 수 있다.¹⁷⁾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하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체와 분리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감에 대해서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피터 버거(Peter Berger)나 한스프리드 켈러(Hartsfield Keeler)와 같은 사회학자들은 현대인의 특징을 ‘정신적인 고향 상실성’(homelessness of mind)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현대인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생활세계’, 즉 수많은 체계(system) 속에서 살고 있으며, 더구나 그 세계나 체계가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은 삶의 목표와 방향감을 상실하고 점점 인생을 방랑적이고 늘 변화하며 유동적인 것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라 리틀(Sara Little)이란 기독교 교육학자 역시 현대인의 상황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인식에 동의하면서, 현대인들이 신념의 공백 상태(the vacuum in belief) 혹은 신념에 대한 혼돈(the confusion about what belief is)에 빠졌다고 본다. 신념의 공백 상태 혹은 신념에 대한 혼돈과 사고의 부재 속에서 정신적인 고향 상실성으로 신음

17) Robert Kysar, ‘New Doctrinal Preaching for a New Century’ *Journal for Preachers*, 20(3), 1997, 18.

하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은 무엇인가?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은 전 세계에 만연해있는 실존적 공허감으로 인한 불안에서 생기는 집단적 신경증의 증후를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무계획적인 삶이다.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계획을 세울 이유와 필요를 못 느끼고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둘째는 숙명적인 삶에 대한 일종의 무기력 증후군으로서 사회적인 억압으로 인한 방황과 닥치는 대로 계획 없이 살면서 자신의 환경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자유롭고(본능과 유전적 소질, 그리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자신을 어떤 대중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몰개성적이고 집단 의존적 사고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하나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렇게 숨어들어간 대중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과 가치관과 삶의 지향점을 포기하고 헤어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방향감과 목표의식을 잃어버린 결과로 타인의 인격을 무시한다. 집단주의자들이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는데 반해 열광주의자들은 타인의 인격을 무시한다.

이러한 집단적인 신경증은 우울(depression)과 탐닉(addiction), 그리고 공격(aggression)으로도 나타난다. 첫째로 전쟁과 기근, 전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 불만과 불안, 그리고 실존적 공허로 인하여 생기는 우울은 그 정도가 깊어지면 자살로 이어진다. 한 개인이 사회적 혹은 집단적으로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하여 절망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여 우울증에 빠지면 그것이 심화되어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그 여파로 인하여 자살은 점점 확산되어 집단적인 신경증으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탐닉은 실존적인 공허감에 빠진 사람들이 환각제, 약물중독, 알

콜, 마야, 성적 탐닉으로 공허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존적 공허와 삶에 대한 불안감에 빠진 사람은 타인과 주변에 대한 공격적 태도 속에서 그 빈 자리를 채우고 보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삶의 목표와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헛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교회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신자의 자유를 위한 교회의 사명과 관련하여 장종현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자유는 더 깊은 자유, 곧 모든 자유의 원천이 되는 영적인 자유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무엇,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무엇, 무엇에게로의 자유, 곧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에게로의 자유를 가리킵니다.¹⁸⁾

기독교 설교자들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 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헛된 가치관의 사슬을 분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자유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곧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에게로의 자유이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들은 인류의 역사와 인생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의 실현 과정으로서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항구적인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리적인 메시지가 설교의 중심 사상을 지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의 실현 과정으로서의 구원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교회를 통

18) 장종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백석 장종현 박사 육영 30년』(천안: 백석대학교 역사편찬 위원회, 2007)), 161.

한 구원의 실현과 선포,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교리적인 메시지는, 역사와 인생의 방향감각과 목표점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현대의 신자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표점을 제공하는 생명과도 같다.¹⁹⁾

③ 교인 편에서 볼 때 교리로 말미암은 또 다른 순기능은 주변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해석의 준거체계(interpretive frame of reference)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가치관과 견해들이 뒤섞여 있으며 다양한 영향력들(경제, 사회, 문화)이 혼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신자들에게 주변 현상들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주변 현상들에 대한 해석의 준거체계이다. 이 준거체계가 세속적일 때 그 사람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는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 신자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증언하고 구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세상, 그리고 주변 현상들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규범과 준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²⁰⁾ 성경적인 관점에서 주변 세계와 현상을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성경적인 목표점을 정하고 성경적인 방향으로 삶을 꾸려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교리이다.²¹⁾ 그래서 맥그라스(McGrath)는 교리(doctrine)을 가리켜서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권위를 부여한 가르침”으로 정의한다.²²⁾

19) Robert Kysar, 18-9.

20) Ronald J. Allen, 15-20.

21) Arthur Van Seters, "Dilemmas in Preaching Doctrine: Declericalizing Proclamation" *Journal for Preachers* 17(3), 1994:33-35;

22) Alister E. McGrath, *The Genesis of Doctrine: A Study in the Foundations of Doctrinal Criticism* (Cambridge: Blackwell, 1990), 11.

그렇다면 올바른 해석의 준거체계로서의 교리는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는가? 교리는 어느 목회자의 개인적인 학문 활동이나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전통에서 확보될 수 있다. 즉 성경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증언과, 그 증언에 대한 2천년의 교회의 일관된 반응으로서의 신앙 고백들, 그리고 그 고백들 속에서 형성된 신앙 전통(tradition)이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가 신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중요한 교리들의 원천이다. 만일 일관된 해석의 준거체계로서의 교리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가 빠약하거나, 2천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 보존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전통에 대한 이해가 빠약한 체로, 목회 현장에서 단순히 성경만 강해하고 설교하는 것만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그 공동체나 설교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전적인 구원사의 흐름에서 이탈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올바로 가르쳐지고 선포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은 먼저 올바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 해석 작업을 안내하기 위한 해석의 준거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리가 성경보다 더 우위를 차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통전적인 해석체계로서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자의 신학적인 편견이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의해서 성경 메시지가 과편화되거나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부터 이탈될 수 있다. 따라서 설교현장에서 성경과 교리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하며 “교리는 성경의 내러티브가 올바로 해석되는 해석의 틀(the interpretive framework)을 제공”해야 한다.²³⁾

- ④ 목회 현장에서 교리의 중요한 순기능 중의 하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리는 삶의 목표

23) Alister E. McGrath, 7-11.

와 방향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준거체계를 제공한다. 이러한 교리의 기능은 개인의 차원에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작용한다. 즉 공동의 가치관과 목표를 지닌 개개인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에 대하여 강력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나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세계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현상을 해석하고 그 현상에 반응하는 방식이 동일한 개개인을 서로 연대시키는 신앙 공동체에 가입하여 그 속에서 진행되는 설교와 예배와 성경공부와 교제, 봉사, 그리고 선교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활동 속에 녹아 들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거대담론을 자신의 삶의 준거체계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도 이뤄진다는 점이다.

교리의 공동체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조지 린드벡(George Lindbeck)이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조지 린트벡은 1984년에 출간된 『교리의 본질: 탈자유주의 시대의 종교와 신학』에서 종교와 교리의 기능과 관련하여 문화-언어적 모델(a cultural-linguistic model)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교리의 특성은 일련의 인지적인 문제에 의하여(이렇게 교리를 이해하는 입장을 가리켜서 인지-명제적 모델, cognitive-propositional model이라고 명명함)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되기 이전의 인간의 영적인 경험들에 대한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이렇게 교리를 이해하는 입장을 가리켜서 경험-표현주의적 모델, experiential-expressivist model이라고 명명함)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인 관습이나 언어적인 관습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²⁴⁾ 즉 교리의 기능이나 역할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교리가 특정한 신앙 공동체의 공적인 활동들(설교나 예배, 친교, 봉사) 속에서 구성원들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공동체의 문화활동과 언어 관습에 의해서 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리의 가치와 기능에서 인지-명제적 역할을 간과하고 문화-언어적 신앙 공동체의 활동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경우에는, 신앙 공동체나 교회와는 별개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계시와 그 계시가 먼저 인간에게 이해될 때의 명제적인 진술의 형태를 취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맥그拉斯는 교리에 대한 린드벡의 관점이 교회의 문화 활동 이전에 선행하는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명제적 진술의 중요성을 포기”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²⁵⁾ 즉 린드벡의 견해는 신앙 공동체의 문화 언어적 활동에 대하여 독립적이며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진리의 주권성과 독자성을 침식하고서 진리의 주권성을 공동체의 활동의 범위 안으로 한정짓는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회 현장에서 교리를 강조하고 가르칠 때 목회자/설교자들은 특정 공동체가 진리의 한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교리를 단순히 명제적으로 정리되어서 신자들이 이를 지성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리가 신앙 공동체의 활동의 전 영역에서 설교와 예배, 성경공부와 친교, 봉사, 선교의 전 영역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만의 독

24) George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4), 33.

25) Alister E. McGrath, 29.

특한 문화 활동의 차원까지 승화되고 신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공동체의 활동에 함께 동참하며 공동체적인 관습을 함께 따르는 가운데 그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기쁨과 슬픔을 규정지으며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단순히 인지적이고 명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의 다양한 공동체적인 활동을 통하여—체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²⁶⁾

IV. 교리 설교 방법론

목회 현장에서 교리가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의 토대와 추진 방향을 제공하며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며 그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해석하고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해석의 준거체계를 제공하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심력을 제공한다면 이제 설교 강단에서 효과적으로 교리를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① 교리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할 것은 목회 철학에 기초한 연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교리 설교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26) 예를 들어 피터 워드(Peter Ward)에 의하면 칼빈의 설교와 목회 사역에서 '말씀과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적임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 with Christ)은 단순히 성만찬의 가치와 의미를 신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고안된 명제적인 진술문으로서의 교리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려는 열망과 의지를 설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실제로 감당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칼빈이 강조한 교리나 신학이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의 설교 사역이라고 한다. Peter Ward, "Coming to Sermon: The Practice of Doctrine in the Preaching of John Calvi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8(3), 2005, 319-321.

해서 즉시로 하나님의 구원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당장 다음 주부터 교리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리 설교의 주제를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통전적인 목회철학과 장기적인 목회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속에서 어떤 교리를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교리 설교를 진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회중의 교육적인 필요나 목회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 교육이 필요한지 아니면 교회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교육이나 설교의 횟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만일에 설교에서 여러 번 다룰 수 없다면 설교 이외의 성경공부나 다른 목회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이 주제에 대한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목회 철학과 목회 계획에 근거하여 특정한 교리를 몇 회에 걸쳐서 교육하고 설교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교리 설교의 방법을 주제 설교(*thematic preaching*)의 방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특정한 책을 연속 강해 설교의 방법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²⁷⁾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나 예배의 특권에 대해서, 또는 신앙 공동체가 여러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 대한 교회론의 교리에 대한 설교나, 성만찬의 신비나 영적 유익에 대한 교리 설교를 할 때 이러한 교리를 관련 주제를 다루는 신학 서적들을 참고하면서 준비할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하나님의 크신 구원)나 사도행전(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 혹은 애베소서(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를 연속 설교하는 가운데 관련된 교리를 설교할 수 있다. 물론 권별설교를 할 때에는 한 가지 교리만을 강조해서 설교할 수도 있지만 본문이 교

27) Stephen Nelson Rummage, *Planning Your Preaching* (Grand Rapids: Kregel, 2002), 144.

훈하고 있는 다양한 교리의 주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교할 수도 있다.

주제 설교의 방법으로 교리를 설교하려는 경우에 용이한 준비 방법 중의 하나는, 조직신학 서적을 참고하거나 교회사의 중요한 신앙고백서(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 담긴 중요한 주제들을 순차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특정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심화시켜나가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자칫 설교가 딱딱한 교리 교육 시간으로 전락되면서 회중에게 교리에 대한 부담감을 심어줄 수 있다.

반대로 성경의 특정한 책을 연속 강해하는 방법으로 교리를 설교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본문이 내러티브 본문인 경우에는 내러티브 플롯의 연속성이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수사적인 관심과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교리 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본문을 해석하다보니 자칫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본문의 본래 의미나 교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성경의 특정 책을 어떤 특정한 교리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횟수에 걸쳐서 설교할 것인지는 앞에서 언급한 목회 철학과 계획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설교할 본문이 결정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본문을 주제한 다음에 주제의 중심사상(exegetical main idea)을 정리하고 이 주제의 중심사상을 다시 신학적인 중심사상(theological main idea)으로 전환시키고,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중심사상을 다시 설교를 듣는 회중을 향한 설교의 중심사상(homiletical main idea)으로 전환시켜야 한다.²⁸⁾ 주제의 중심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특정 역사적 상황이나 또는 본

28) Timothy S. Warren, "The Theological Process in Sermon Preparation" *Bibliotheca Sacra* 156(623, July-Sep. 1999), 336-56, 특히 354.

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개입한 특정 역사적 상황 속으로 상황화 (contextualization)되어 있다. 주제의 중심사상이 오늘의 회중에 대하여 적시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그 주제의 중심사상에 깃들어 있는 본문의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탈상황화(decontextualization)시키기 위한 과정이 바로 본문 주제의 중심사상을 신학적인 중심사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주제의 중심사상을 조직신학적인 구도 속에 대입 시켜 보면서 그 조직신학 속에서 본문의 핵심사상이 정당하게 자리매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²⁹⁾ 마지막으로 설교의 중심사상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주제의 중심사상이나 신학적인 중심사상을 염두에 두고서 이번 주 일날 내 설교를 들을 회중의 상황을 떠올려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본문의 핵심사상이나 신학적인 중심사상 속에 포함된 교리를 오늘의 회중의 상황에 부합하게 설교한다면 어느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설교하는지의 설교의 중심사상이 결정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과 형태를 따라서 설교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무슨 목적을 위해서 설교해야 할 것인지도 결정된다.

④ 설교의 핵심사상을 결정할 때는, 오늘 청중의 삶과 무관한 조직신학적인 서술문의 형태로 정리하기보다는 신자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영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는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나 성화에 관한 주제로 교리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에 에베소서 1장 3-6절을 주제하여 신학적인 중심사상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사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

29) 리차드 프랫, 『구약의 내러티브 해석』 이승진 공역 (서울: CLC, 2007), 449-477.

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로 정할 수 있다. 문제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관한 이러한 교리적인 진술문을 그대로 설교하는 경우에 신자들은 이러한 교리적 지침이 자신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러한 교리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신자들이 삶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그러한 고민과 갈등에 대한 해답의 차원에서 교리적인 지침들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관련하여 신자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고민과 갈등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삼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삼으셨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교회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찬양을 정성껏 부르면 된다는 의미인가?',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과연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화에 관한 교리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교리적인 교훈들을 잘게 나누어 질문-응답의 패턴으로 설교의 흐름을 구성한다.

(5) 설교의 핵심사상이 결정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교리를 특정 회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설교의 방법이나 전략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플린은 '강해식 교리 설교'와 '주제식 교리 설교', '내러티브 교리 설교', 그리고 '연극을 활용한 교리 설교'의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³⁰⁾ 강해식 교리 설교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성

30) 밀라드 에릭슨 & 제임스 해플린, 259-378.

경 본문을 순차적으로 강해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교리를 제시하고 이어서 그 교리의 적용점을 제시하는 설교이다. 주제식 교리 설교는 일반적인 주제 설교에서 동원되는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교리를 설교하는 방법이다. 세번째 내러티브 방법을 따르는 교리 설교는 성경 본문이 내러티브 장르로 구성된 경우에 본문 내러티브의 연속적인 흐름을 설교에 그대로 끌어와서 이야기를 진술하되 중간 중간에 교리적인 교훈을 제시하는 방법과 기독교적인 이야기나 예화의 흐름 속에 성경적인 교리나 교훈을 담아서 전달하는 방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극 의상이나 소품들을 활용하여 극적인 방식으로 교리를 연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이나 1인칭화법으로 이야기를 진술하는 방법은 매주일 예배에서 활용할 수는 없더라도 특별 예배나 절기 예배, 혹은 수련회 예배에서 창조적으로 시도해 볼만 하다.

V. 결론

이상으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증의 늪에 빠진 한국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긴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설교의 한 가지 대안을 교리 설교로부터 모색하였다. 설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의 내용과 선포의 목적은 모두가 성경에 근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적인 근거를 확보한 메시지의 선포를 통해서 신자에게 영적인 생명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설교 메시지에 담긴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당위성에 대해서 장종현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요 8:52).³¹⁾

즉 성경이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주도적인 구원의 내용을 선포하여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헌신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설교자는 2천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일관되게 계승 발전시켜온 신앙 고백과 교리를 성경 해석의 준거체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리적인 준거체계가 없이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선포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가치체계나 준거체계가 없이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일관성 있게 꾸려갈 수 없다. 결국 성경과 교회 회중의 중간에 서 있는 설교자가 교리적인 준거체계를 먼저 확보하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설교 메시지 때문에 신자들의 영적 성숙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교리설교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과 아울러 그 실제적인 방안을 다섯 단계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교리 설교 한 편을 전하기 전에 먼저 목회 철학에 기초한 연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

31) 장종현, “생명신학”, 『백석 장종현 박사 육영 30년』(천안: 백석대학교 역사편찬 위원회, 2007), 44.

라를 이 땅에서 증언하고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목회 철학과 목회 계획에 근거하여 특정 교리를 몇 회에 걸쳐서 교육하고 설교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교리를 주제 설교로 전할 것인지 아니면 연속 강해 설교로 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렇게 하여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다음은 본문을 주제하여 주제의 중심사상과 신학적인 중심사상, 그리고 설교의 중심사상을 정리한다. 넷째는 설교의 중심사상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오늘의 회중의 상황과 연관되도록 정리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교리를 특정 회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설교의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올바른 교리적 가르침들이 선포됨으로써 한국교회가 개혁주의의 소중한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에 담긴 생명의 능력으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며 한국 교회의 개혁주의 유산을 후세대에게 올바로 계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데이비드 헨더슨. 『세상을 따라잡는 복음』. 임종원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밀라드 에릭슨 & 제임스 헤플린.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 설교』. 이승진 역. 서울: CLC, 2005.
- 박찬호.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신학 교육: 학문만으로서의 신학의 문제” 『생명과 말씀』 제 1 권 (2010): 39–86.
- 장종현. 『생명을 살리는 교육』. 서울: 백석신학연구소, 2008.
- . “생명신학”. 『백석 장종현 박사 육영 30년』 천안: 백석대학교 역사편찬위원회, 2007.
- .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백석 장종현 박사 육영 30년』 천안: 백석대학교 역사편찬위원회, 2007.
- .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학자”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제 1차 정기학술대회 및 창립총회』 서울: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창립추진위원회, 2009. 9–14.
- Allen, Ronald J. *Preaching is Believing: The Sermon as Theological Reflec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Alister E. McGrath. *The Genesis of Doctrine: A Study in the Foundations of Doctrinal Criticism*. Cambridge: Blackwell, 1990.
- Arthur Van Seters. “Dilemmas in Preaching Doctrine: Declericalizing Proclamation” *Journal for Preachers* 17, no. 3(1994): 31–40.
- Browning, Don S. ed., *Practical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 Dingemans, Gijisbert D. J. “Practical Theology in the Academy: A Contemporary Overview,” *The Journal of Religion*, vol. 76, (January 1996), 82–96.
- Farley, Edward. “Theology and Practice : Outside the Clerical Paradigm”, Don

- S. Browning, ed. *Practical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21-41.
- George Barna. *The Barna Report 1992-93: American Renews Its Search for God*. Ventura, Calif: Regal, 1992.
- George Barna. *What American Believe: An Annual Survey of Values and Religious Views in the United State*. Ventura, Calif: Regal, 1991.
- George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4.
- Jacob Firet. *Dynamics in Pastoring*. Grand Rapids: Eerdmans, 1986.
- Peter Ward. "Coming to Sermon: The Practice of Doctrine in the Preaching of John Calvi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8, no. 3 (2005):319-332.
- Robert Kysar. "New Doctrinal Preaching for a New Century" *Journal for Preachers*, 20, no 3 (1997):17-22.
- Ronald J. Allen. *Preaching is Believing: The Sermon as Theological Reflec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Stephen Nelson Rummage. *Planning Your Preaching*. Grand Rapids: Kregel, 2002.
- Timothy S. Warren. "The Theological Process in Sermon Preparation" *Bibliotheca Sacra* 156, no 623 (July-Sep,1999):336-56.
- Thomas R. McKibbens. "Disseminating Biblical Doctrine Through Preaching"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19, no 3 (1984):42-54.

Abstract

Doctrinal Preaching to Proclaim Life of Gospel in the Church

Seung Jin Lee

Graduate School of Practical Theology, Preaching

Because of pragmatism, relativism, emotionalism, experientialism, and lack of interest of education and study in the contemporary Korean culture, doctrinal preaching has lost its commanding authority and importance in the Korean church pulpit. However, importance of doctrine in Christianity should not ignore and could not disappear both in the Christian pulpit and in the Christian homiletical study. Doctrine offers the Christian pastors a long term vision and direction of the Christian Pastoral ministry. It also gives lay people hermeneutical frame of reference about God, world, and themselves. Without consistent and systematic doctrinal frame, Christian can not but fail to understand God, world, and themselves, and it is not easy to anticipate of embodiment of Christian life as the Bible directs. Because of offering the Christian a consistent frame of reference about God, world, and self, and gathering the same people who share the same belief, doctrine can lay the foundation for the alternative Christian community against the secular society.

For an effective doctrinal preaching, preacher should firstly establish

pastoral philosophy and pastoral master plan based upon understanding of what the church is in relation to the kingdom of God. After then preacher should determine which doctrinal subjects and how many times should be preached for the specific local church context. After selecting relevant biblical text and exegetical works, preacher should grasp exegetical, theological, and sermonic main idea step by step. In this sermonic main idea, doctrinal message and statements are so effectively intwined with the context of audience that doctrine could be preached in relevance to the audience.

Key Words: reformed theology, doctrinal preaching, life theology, contextualization, main idea.